

민간인 보호한다더니...美, 이스라엘에 폭탄·전투기 지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세가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수십억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조용히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WP가 익명의 국방부·국무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에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1천800발과 500파운드급 MK82 폭탄 500발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2천파운드급 폭탄은 도시의 여러 구획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해 서방국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거의 사

용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자주 사용해왔다.

또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F-35A 전투기 25대와 엔진 등 2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지난주 승인했다.

이를 두고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을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등을 빚긴 했지만, 무기 지원을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계속해서 지지해왔다"며 "지원에 조건을 더는 것은

의회 통보 없이 조용히 집행...지원에는 조건 달지 않아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 우려

우리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우군을 포함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공세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구호품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폭탄을 더 승인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기본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가 라파와 관련된 요구,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가게 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데도 이스라엘에 더 많은 폭탄을 보내는 게 모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폭탄과 전투기 지원은 수년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도 그동안 집

행되지 않은 건이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사실을 의회에 다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무기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통보 의무를 피하려고 일부러 과거 승인 건을 지금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국무부 당국자는 "의회에 통보해 승인받은 게 한 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제 집행할 때는 수십년간 여러 개의 개별적인 대외군사판매(FMS)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F-35 전투기 같은 큰 구매 건은 수년간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설명했다.

라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피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최소 12만 명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안보 당국자들을 워싱턴 DC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반발하며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된 올해 미국 대선에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사진은 '바이든 납치' 연상 그림을 붙인 차량. (트럼프 전 대통령 트루소 소셜 계정 캡처)

트럼프, '바이든 납치' 이미지 담긴 동영상 올려

美대선 최악 진흙탕 싸움...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후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급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자리를 일찌감치 확정지으며 각 당의 경선 열기는 사그라들었지만, 그만큼 때 이르게 본선 레이스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된 올해 미국 대선에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피랍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포함된 동영상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 올리면서 전현직 대통령 캠프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소 소셜 계정에 성조기를 단 채 도로를 달리는 한 픽업트럭을 후방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차 차미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결박당한 채 누워있는 그림이 붙어 있었다.

영상에는 '28일 뉴욕주 롱아일랜드'라는 시간, 장소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통단속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뉴욕 경찰

관의 유족을 찾아 위로하고 법질서 강화를 강조한 날이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폭력 조장 성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 홍보국장인 마이클 타일러는 "트럼프는 일상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트럼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같은 날 "그 사진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픽업트럭 뒤에 붙은 것"이라며 고의의 연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체코서 검진 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시술'

체코의 한 병원이 환자를 혼동하는 바람에 정기 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가 낙태시술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체코 프라하의 블로프카 대학병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정기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의 일종인 자궁소파술을 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

터트트사우 등이 체코 언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병원 측은 비슷한 시각 자궁소파술을 받으려던 여성과 피해 임신부를 혼동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두 여성은 모두 외국 출신으로 체코에 정착해 사는 시민이었다고 체코 매체들은 전했다.

블로프카 병원 측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환자를 오인한 사고는 관련 직원의 심각한 내부 규정 위반에서 비롯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보건부는 "응수받을 수 없는 잘못이 있었다"며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프라하 경찰은 병원 측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설명 안되는 기적"...50m 버스추락 생존 미스터리

남아공서 45명 숨지고 8세 소녀는 '경미한 열상'

버스가 50m 협곡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서 8세 소녀가 살아남은 사실을 두고 기적이라는 말이 뒤따르고 있다.

사고는 지난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북동부 음마트라칼라산의 도로에서 버스가 급커브를 하다가 일어났다.

버스는 추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여 운전자와 승객 등 45명이 사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탑승객 가운데 8살인 로린 시아코만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소녀가 팔, 다리, 머리 등에 경미한 열상만 입은 채 사고 버스에서 탈출했다고 알렸다.

로린은 자기 할머니와 함께 코로나19로 4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부활절 행사를 위해 사고 전날 밤 남아공 보츠와나의 몰레폴롤레 마을에서 동료 교인 43명과 함께 교회 본부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로린의 어머니 가울레발레 시아코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딸이 어떻게 그 버스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아코는 "내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프지만 딸이 살아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로린 어머니의 사촌 카벨로 조셉 셀로메는 "누구도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 지역인 림포포주 보건 당국의 대변인 탈리발리 무아바는 이 소녀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계곡 50m 아래로 추락해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